

AMAPLAST

2017년, 이탈리아 플라스틱 기계업계 사상최고실적 기록

170여 개의 이탈리아 플라스틱고무가공기계 및 금형제조기업들의 연합인 AMAPLAST가 지난 이탈리아 플라스틱 및 고무기계, 장비, 금형 시장이 2017년 모든 거시경제 지표 면에서 그 전해에 비해 두 자리 숫자의 상승을 보이며 사상최고의 기록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통계적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AMAPLAST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수시장뿐 아니라 이 분야에서 생산되는 이탈리아 제품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 수출실적에 의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

는 기계생산은 전반적 경기회복의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부분적으로 이탈리아 정부가 자본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국가계획(National Industry 4.0 Plan)' 관련 정책 덕분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탈리아 내수시장의 확대 또한 눈에 띄게 활발해진 수입물량을 통해 드러난다.

이탈리아 플라스틱 및 고무가공 기계류의 수출지역에 있어서는 가장 큰 수출시장인 독일과 프랑스가 있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유럽지역 수요가 2016년 대비 20% 이상의 큰 성장을 보였다. 그 규모에 있어 순위는 10위에 불과하지만, 루마니아는 2017년 4분기에 급격한 구매증가를 보이며 전년 대비 69% 이상 성장

하여, 출하지역 순위에서 러시아를 10위 밖으로 밀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시장 또한 약 1억 유로 가량의 이탈리아 기계를 수입하여 전년에 비해 67% 성장하며 빠른 회복을 보였다. 아시아 지역 판매는 중동(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지역 수출이 5%정도 성장을 보이고, 극동지역 판매 또한 중국(-2.5%)과 인도(-6%) 주요 두 시장 실적이 하락세를 보이며 눈에 띄는 약세를 기록했다.

미국시장 판매는 20%의 성장을 기록한 반면, 멕시코 수출은 약 17% 하락했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이 플라스틱 및 고무가공 기계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문에서 미국의 국내생산 만으로는 자국 내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부가에 실익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미지역에서는 브라질 시장의 수출회복세가 활기차게 지속되면서 5천만 유로 이상의 기계를 판매하며 2016년 대비 40% 이상 성장했다.

● 플라스틱 및 고무가공 기계 장비 (단위: 백만유로)

분류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2017 증가비율
생산	4230	4670	10%
수출	2960	3310	12%
수입	850	970	14%
내수시장	2120	2330	10%
무역수지	+2110	+2340	11%

● 플라스틱 및 고무가공 기계류, 장비 및 금형의 출하지역

분류	2016년	2017년
유럽	58.7(49.5)	60.7(51.7)
아시아/오세아니아	16.7	15.1
북미/NAFTA	14.4	13.7
중미/남미	5.5	5.6
아프리카	4.7	4.9

중소기업중앙회

제1회 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 개최 “조합 신산업 중심 재편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4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회 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위원장 정명화/곽기영)'를 열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회원구조 현황과 협동조합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명화 공동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0여년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각 업종별로 중소기업조직화를 통해 전후방산업을 연결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외부환경 변화와 자체 혁신성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이 네트워킹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협업생태계 구축 등 정부의 협동조합 육성기조와 협업 네트워크 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의지에 힘입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전통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어 신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고, 글로벌화나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어려운 구조인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정회원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역

시 신산업과 새로운 혁신이 요구되는 경제사회적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정관 개정 및 적극적인 사업구조 개편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내 협동조합 전담부서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부내에 협동조합과 협업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협동조합지원과를 설치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육성하고 개별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활력회복과 구조개선관련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구다. **(PK)**